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3국의
관세동맹 체결 내용과 전망

1. 러-벨-카¹⁾ 관세동맹의 개요

□ 2010년 7월 6일 관세동맹 발효

-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대통령, 루카첸코(Lukashenko) 벨로루시 대통령,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3국간 공통 수입관세율 적용에 합의함.
- 러-벨-카 3개국은 관세동맹으로서 세관행정 및 통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한 “세관기본법”을 2010년 7월 6일부터 공동 발효시켰음.

<표 1> 러-벨-카 관세동맹 추진 과정

날 짜	내 용
1995년 1월 6일	러시아, 벨로루시 양자 관세동맹 협정 체결
1월 20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자 관세동맹 체결 협의
1996년 3월 29일	키르기즈, 동 관세동맹 협정 가입
1999년 2월 26일	타지키스탄, 동 관세동맹 협정 가입
2000년 10월 10일	EURASEC(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창립조약 서명
2001년 5월 30일	EURASEC 발효
2006년 8월 16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설립 결정
2007년 10월 6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창설위원회 설립, 단일관세구역 및 관세동맹 창설 조약 체결

1)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을 줄여 이하 러-벨-카로 표기함.

2008년 1월 25일	3국간 역내 관세율 조정 합의
2009년 11월 27일	단일 관세법 채택, 관세동맹 시행 합의
2010년 7월 6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관세법 발효

자료: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위원회(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2. 러-벨-카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

□ 공통 수입관세율은 러시아의 기존 수입관세율 체계 준용

- 관세동맹 체결로 적용되는 공통 수입관세율은 러시아의 기존 수입관세율 체계를 준용하기로 결정됨.
 - 식료품과 자동차, 의류 등을 포함한 약 1,850개 상품의 관세율이 조정되었으며 9,500개 상당의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러시아가 적용하는 평균 10~11% 수준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

□ 국가별 수입관세율 조정 내역

- 러시아
 - 러시아 경제발전통합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관세동맹 체결로 3국간 적용되는 관세율이 러시아는 전체 관세 대상 품목에서 종전에 비해 14%의 품목은 인하되는 반면, 4%의 품목은 인상되며, 82%의 품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가전제품의 관세율이 인하된 반면, 육류, 의류 등의 관세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으로 에어컨의 수입관세율은 철폐되고 진공청소기, 믹서기 등은 15%에서 5%로 수입관세율이 대폭 인하됨.

<표 2>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율 조정 내역

품 목	수입 관세율			
	기 존		변 경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15%	0.15유로/kg	25%	0.35유로/kg
소세지	20%	0.15유로/kg	25%	0.4유로/kg
코트, 점퍼(남성, 여성, 아동용)	20%	3유로/kg	10%	4유로/kg
쌀	0.07유로/kg		0.12유로/kg	
DVD 플레이어	10%		5%	
진공청소기, 믹서기	15%		5%	
에어컨, 식기세척기	15%		0%	
헤어드라이어, 토스터	15%		10%	
올리브유	10%		5%	

자료: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위원회(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경우 공통 수입관세율 적용에 따라 45%의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하되는 품목은 10% 가량에 그침. 단,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특정 유예기간(2011.6~2014.12)을 별도 설정함.
- 품목별로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0~5%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던 의약품, 의료품, 가죽 제품, 기계류 등의 제품 가격이 약 5%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벨로루시

- 벨로루시의 경우 관세동맹 발효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수출입 시 각종 절차가 간소화되었음.
- 현재 러시아 부품이 50% 이상 사용된 제품만 원산지 증명서 없이 수출 가능하던 것이 이번 관세동맹 발효로 인하여 자국산 모든

제품이 원산지 증명서 없이 대 러시아 수출이 가능함.

3. 러-벨-카 관세동맹 발효에 따른 전망

□ 러시아 정부는 연내 WTO 공동가입 추진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말까지 WTO에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과 함께 WTO 공동가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였으나, WTO에서는 공동가입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미국, EU 등의 반대로 WTO 가입이 어려울 경우 러시아는 WTO 단독 가입 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힘.
- 이번 3국간 관세동맹 체결에 이어 러-벨-카 3국은 2012년에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단일경제구역(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ЕЭП) 창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3국의 관세동맹 관련 전망

- 러-벨-카 관세동맹이 발효되면, 3국간 상호 교역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 국 경제의 경쟁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 소비자들은 수입관세율이 인상되는 품목보다 인하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관세동맹으로 수입물가 하락으로 인한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²⁾
- 카자흐스탄은 관세율 인상 품목의 증가로 수입재의 평균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 전체 품목 중에서 14%의 품목이 관세율 인하되고, 4%의 품목이 관세율 인상됨.

- 수입재의 가격 상승은 카자흐스탄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 및 수입재 수요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이로 인한 수입재 소비 감소는 자국내 생산자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벨로루시의 경우 이번 관세동맹 발효로 인하여 관세동맹국과의 통상에 있어 통관, 운송, 위생 등의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로 벨로루시 상품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시장 접근 가능성이 높아져 수출증대가 예상됨.
- 따라서 벨로루시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주변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

- 최근 불안한 국내 정세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던 키르기스(WTO 가입)도 관세동맹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동 관세동맹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함.
-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이번 관세동맹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동 관세동맹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 관세동맹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만약 관세동맹에 가입한다면 동맹국과의 교역증대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조사역 최희정, 인턴 이재상
(☎ 02-3779-6676/5659)
E-mail : heej_choi@koreaexim.go.kr